

현 장 방 문 결 과 보 고 서

(기 획 행 정 위 원 회)

- 일 시 : 2005. 11. 17(목) 10:00~14:00
- 장 소 :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및 비둘기아파트
- 참 석 : 7명(손홍섭 위원장, 이정임 간사,
이상진·박배원·박세채·전인철·허 복 위원)

□ 방문결과

《구미종합사회복지관》

- 직원들의 퇴근시간 이후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 대책 강구
- 수급권자와 일반인과 격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
- 한마음회관 신축 및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 검토

《비둘기아파트》

- 입주자 이주대책을 강구한 후 매각 또는 신축 방안 등 공직자 거주대책 검토

□ 현장대화내용 : 별첨

현 장 대 화 내 용

<구미종합사회복지관>

- (일반현황 설명)
(설명자 : 소장 신현목)
- 단지내 거주하는 수급권자와 주위 일반 시민들과의 마찰은 없는가?
- 주공단지 내에 주거하는 분과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과의 마찰은 없음.
- 한마음회관이 신축되면 어려운 사람과 일반시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음.
- 이용하는데 자격 제한은 안하고 회원제로 준비를 하고 있음. 현재는 건물만 짓고 차후 기능보강이 되어야 함. 총 3억을 시에 요구했는데 위원님들도 관련 예산이 올라가면 참고해 주셨으면 함.
- 다른 복지시설 현장방문을 하면 건의사항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곳은 건의사항이 없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없는지?
- 애로 사항 나중에 말씀드리겠음.
-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와 협의하고 의회에도 관련 자료를 주셔서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음.
- 그러겠음.
- 복지관 직원이 구미에 거주하지 않아서 퇴근시간 되면 다 퇴근하고 없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음. 직원명부를 보면 반이 구미에 거주하고 반은 외지에 거주를 하는데 그런 우려가 사실인지?
- 9시까지 당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필요한 시설 이용이 가능함.
-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었으면 함.

- 그러겠음.
- 600세대 중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?
- 독거 노인은 딸이나 아들집으로 가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이고 차상위계층은 돈을 모아서 이사하는 경우임.
- 딸 아들이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가?
- 처음에는 입주가 다 안 되어서 차상위계층도 받고 해서 그렇음.
- 지금 입주하려고 대기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?
- 200명 정도임.
- 입주가 급한 분들도 있을 것 아닌가?
- 급한 분들은 시장님 명의로(추천) 하면 순위 변경이 가능할 것임.
- 황산초등학교 내에 학생들간 위화감은 있지 않나?
- 있음.
- 학교 내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?
- 학교에 가서 상담도 하고 있고 결식아동 급식사업도 진행 중이며 서로 부딪치는 부분은 학교와 협력을 하고 있음.
- 효과는 있는가?
- 목걸이(열쇠) 하고 있는 아이들은 결손가정 아이들이라 보면 됨. 그런 애들이 오면 공부도 시키고 급식 관계도 학교와 협의도 하고 방학때는 여기서 급식도 함.
- 학생간 위화감을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복지관에서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학교 선생님과 자리를 같이 해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 지도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음.
- 1달에 한번 정도 학교를 방문해서 면담을 계속하고 있음.
- 노인 여가실은 이곳에 계시는 분들만 오시나 아니면 외지 분들도 오시는가?
- 제한은 없음.
- 평균 하루 이용 인원은?
- 40~50명 정도임.

- 건강관리실도 병행하는가?
-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니 이용하면 됨.
- 어린이 집도 고정되어 있지 않나?
- 오픈 되어 있으며 다른 어린이집보다 30% 정도 저렴함.
-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음. 재계약은 이루어졌는가?
- 계속 재계약 했음.
- 시비, 국도비 외에 자부담은 없나?
- 1년 예산이 9억 정도 되는데 자부담과 후원금이 있음. 시부담이 4억 정도됨.
- 한마음회관 신축 외에 현안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.
- 건물 짓고 나면 직원 보강과 운영비 1억5,000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시에 말씀을 드렸으며, 목욕차량을 운영하는데 자원봉사 3명과 기사 1명이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기사 1명 운영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음.
- 기사는 누가 하고 있나?
- 복지관 직원이 하니 어려움이 있음.
- 집행부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?
- 시 예산은 없고 도에 요청을 했음. 한마음회관은 건축과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직 회관이 시로 이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음. 한마음회관 준공 후 복지회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등급이 올라가서 인원이 보충되어야 됨. 아직 운영권을 시에서 안 받았는데 복지관에서는 3억 정도 시에 예산 요구를 하는데 예산 반영은 안 되었음.
- 한마음회관은 별도로 관리보강이 있어야 되겠으나 운전 기사 인건비는 반영이 되겠는가?
- 예산 반영은 안 되었음.
- 목욕차량 기사 인건비 얘기임.
- 복지관에서 예산 요구는 해 왔는데 1명 목욕하는데 50~100만원 소요가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노인복지팀에서 하는 것이

좋을지 어떤 것이 좋을지 협의하고 있음. 한마음회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데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안 되어서 예산 반영하는데 절차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음.

〈비둘기아파트〉

- (관리현황 설명)
- (설명자 : 회계과장 임경도)
- 안전진단 받은 등급은?
- C등급을 받았음. 재건축을 하려면 D등급을 받아야 됨.
- 매각을 하고 외곽으로 나가면 안 좋겠나?
- 매각해서 다른 곳에 건축할 돈이 안됨.
- 공무원 사기 양양을 위해서 의회에서 노력하는데 집행부는 소극적인 것 같음.
- 리모델링 하는 것이 공무원 혜택을 주는 것임. 매각을 하거나 하면 이주 문제에 어려움이 있음.
- 전체 리모델링 예산은 얼마정도 예상되는가?
- 20억 정도 됨. 리모델링을 하면 1개동씩 하면 어려움이 적은데, 팔고 다른데 지으려면 전체 이주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음.
- 1~2억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임.
- 10~15년 정도 쓴다고 보면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이 20억 정도 드니 어려움이 있음.
- 이주대책 세우고 매각하는 것은?
- 이주에 어려움이 있음.
- 대토 방식으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지어 놓은데 입주하고 이 곳을 대토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가?
- 현재 100세대인데 50%를 안 준다니 어려움 있음.
- 형평성 문제도 공무원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 1~2년 살 수 있는 아파트 임대해 주고 비둘기아파트는 매각하는 것은?

- 입주 곤란한 세대가 자꾸 늘어나는데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모아 보겠으니 집행부에서도 좋은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람.
- 내년 예산도 최소한 경비를 올렸는데 자체 삭감되었음.
- 입주한 분들 이주대책 비용을 뽑아 보기 바람.
- 개인한테 임대아파트 얻어주는 근거가 없음.
- 시가 시장명의로 아파트 임대를 하라는 것임.
- 전인철 위원님 얘기한 부분과 매각후 신축 방안 등 3개 정도의 안을 만들어 보기 바람.
- 그러겠음.
- 시가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이 1/2정도 부담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.
- 그러겠음.

현 장 방 문 결 과 보 고 서

(산업 건설 위원 회)

□ 방문 일시 : 2005. 11. 17 (수) 10:30~14:00

□ 방문 대상 : 산업건설위원(변우정 위원장 외 10)

□ 방문 장소 :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

칠곡군 석적면 중리(구미시 하수처리장 내)

□ 방문 결과

■ 사료화 시설

- 대행 업체 : (주) 자원
- 처리 용량 : 95톤/일
- 방 법 : 습식(액상) + 건식사료화
- 추진 일정 : 2005. 12. 27 준공식 예정

■ 지적 및 건의 사항 요약

-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길 바람
- 농가에서 습식보다는 건식을 많이 요구하니 참고바람

□ 현장 대화 내용 : 별첨

현장 대화 내용
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현황 및 추진일정 설명
- 백옥배 위원 : 이 대행업체는 개인이 운영하는가?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그러함.
- 백옥배 위원 : 왜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가?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98년부터 국비지원으로 오리사료화 시설로 운영이 되었으며 수분탈취를 해서 협착물을 톤당17만5천원 정도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음.
- 백옥배 위원 : 무슨 이유로 구미시 하수처리장 내에 개인업체가 들어와 있는가를 물었음. 칠곡으로 세금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?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기부채납된 것임.
- 위원장 변우정 : 위탁·수탁 관계로 줄 수 있는 사항임..
- 문영덕 위원 : 기부채납을 받아서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지난번 조례개정에 의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.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거부반응이 오는데 기존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수월함.
-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: 환경사업 관련 업체는 세금이 면제됨. 갑근세, 부과세가 없음.
- 임성수 위원 :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처리용량이 충분한가?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1일 발생하는 75톤 중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처리토록 되어 있음. 1일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.
- 임성수 위원 : 구미시 인구가 50만 이상 된다고 봤을 때도 처리가 가능한가?
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75톤 중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20톤을 처리하므로 자체적으로 10년 정도는 안정적 처리가 가능함.
- 이강덕 위원 : 슬러지를 해양처리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슬러지가 아니고 침출수, 일명 짙물이라고함.
-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: 환경부에서 기술적으로 검토 중임.
- 이강덕 위원 : 축산폐수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므로 해서 오염이 심각한 상황임. TV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. 차후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볼 때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임.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1처리시설에서 전처리를 하고 있음.
-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: 하수과에서 병합처리를 하고 있음.
- 이강덕 위원 : 개인이 35억 투자를 해서 시유지에 건립을 하면 민간인이 구미시에 대해 그만큼 이윤창출 하려고 할 것임. 즉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상황이 온다는 것임.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함. 17년간 운영을 해야만 자본회수가 가능하다고 들었음.
- 김익수 위원 : 작년에 조례로 다른 사항임.
- 문영덕 위원 : 담보를 설정하도록 했는가? 부도가 날 경우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?
-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: 담보는 설정 못하도록 되어 있음.
- 위원장 변우정 : 부도 날 이유가 없음.
- 정재화 위원 :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가?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그러함.
- 정재화 위원 : 처리비용은 얼마인가?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용역을 줬는데 대구시에서는 5만6천원 정도 함.
- 문영덕 위원 : 처리방법에 건식사료화와 습식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건식

은 오리사육장으로 가고 습식은 양돈농가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
알아본 결과 농가에서는 건식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음.
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소요량 파악을 한 후 건식으로 대체 가능함.
- 문영덕 위원 : 농민들의 요구가 많으므로 조치해 주기 바람.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공문으로 회의를 하겠음.
- 정재화 위원 : 사료는 구미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가? 퇴비도 무상
제공에 포함이 되는가?
-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: 퇴비는 해당이 안 됨.
- 임성수 위원 : 이 시설의 평수는 어떻게 되나?
-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: 170평 정도 됨.
- 임성수 위원 : 평수가 작다고 봄.
-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: 이 시설은 다른 곳에는 설치가 불가함.
- 위원장 변우정 : 저번 조례개정 때 음식물쓰레기를 차로 싣고 와서 지하로 보
내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은 어디 있는가?
-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: 그 공법이 어렵다고 함.
- 정재화 위원 : 업체 선정은 공모로 했는가?
-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: 공개리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음.